

# 19세기 朝鮮人の 技術觀과 記述意識

강민구\*

## || 차례 ||

1. 서론
  2. 中國의 中世的 技術觀
  3. 우리나라의 中世的 技術觀
  4. 『松南雜識』에 나타난 19세기 조선인의 技術觀
  5. <技術類> 記述의 特性 -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본고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국가 기술 경쟁력의 제고라는 문제의 근원을 국학적 시각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의식 하에 작성되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분수령이 되는 19세기 우리나라의 기술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되 종적 연원을 탐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중국의 기술관을 살펴보면 漢나라 이후로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출현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하위 범주도 다양해졌다. 한편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宋元 시기에 강화되었다가 明清 시기에 그것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주제로까지 인식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세적 기술관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점복술과 의술을 의미하되 잡기나 음악도 포함되었으며 근대적 의미의 기술관은 17세기 이후로 제기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점복술이나 의술은 사대부의 교양으로 인식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반면 기능적 성격의 기술은 천시되어 발전의 장애가 되었다는 점이다. 19세기의 기술관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趙在三의 『松南雜識』 <技術類>이다. 『송남잡

---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지』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여전히 중세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중세적 가치에 의해 항목이 배열되어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근대적 의미의 기술관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항목들이 다수 들어 있다. 전통적 기술의 대표적 범주인 점복술과 의술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잡기, 오락, 놀이, 서커스, 演戲, 演行, 민간신앙과 결부된 축지법·은신술·변신술·呪呪術·欺瞞術이 망라되어 있다.

그들 항목에 대한 記述意識에서 포착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비주의적 요소이다. 이는 놀이와 게임, 서커스를 제외한 諸範疇에서 고루 보이는 현상이다. 그가 유가적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나름대로의 합리적 시각을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文人이기 때문이다. 조재삼은 〈기술류〉를 기술함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급적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기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기록하였다. 이는 문학가의 세계관과 기술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주제어** 技術, 中世的 技術觀, 中國의 技術관, 우리나라의 技術관, 19세기, 趙在三, 松南雜識, 神秘主義的 要素, 西洋認識, 文學的 記述意識

## 1. 서론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국가 기술 경쟁력의 제고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한 환경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에 韓國國民은 조급증과 위기의식을 느끼기까지 한다. 물론 半導體, 造船 技術 등 몇몇 분야는 선도적이지만 제반 기술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적 문제를 人文學, 특히 韓國學이라고 해서 별개의 분야로도 의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는 현재적 문제의 근원을 國學的 視角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의식 하에 작성되었다.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근세에 외세의 침

탈을 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근본적 원인은 '기술의 진보' 혹은 '수용'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하였거나 역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의 전환기인 19세기 우리나라의 기술 인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技術이 존재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관점 역시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외래적 기술, 기술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고유의 가치관과 관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 技術이라는 개념은 機械·手法·手段·재주, 혹은 과학이라는 개념과 上下的 관계나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것의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역사적 굴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 하나가 낙후된 기술력 때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박성래 교수는 "18세기 말까지 韓·中·日 세 나라에 서양과학이 소개된 내용을 비교하면 중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비해 한국의 수준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그 이유로 서양과학이 세 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時差, 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무게, 各異한 상황 속에서 서양과학을 접하게 된 세 나라 지식층의 반응을 들었다.<sup>1)</sup> 그의 견해는 수긍이 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적 전통 속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 기술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었다면 외래 기술을 수용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리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1) 「韓·中·日의 西洋科學受容 : 1800年 이전의 근대과학 잠재력 비교」,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3권 제 1호, 한국과학사학회, 1981.

중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西歐도 19세기는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시기이다. 서구의 경우 1870년대에 대기업은 물리학자와 화학자를 고용하고 정부가 軍備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하게 되면서 기술은 과학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技術'은 '藝術' 혹은 '技藝'로, '科學'은 '自然哲學'으로 불리고 있었다.

Marcel Mauss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고 조직화된 그리고 전통적인 동작 및 행위의 집합이며 이 모든 것을 결합하여 물질적 화학적 또는 유기체적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 Jagues Ellul는 기술의 영역에서 종교나 예술의 분야를 배제한 것으로 논평하면서 呪術은 기술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sup> 19세기 조선인의 기술관은 현재 우리의 개념과는 커다란 거리가 있지만 서구 기술관의 개념이 변모하는 과정과 일치하는 형상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중국의 기술관과 우리나라의 중세적 기술관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하도록 한다.

## 2. 中國의 中世的 技術觀

漢文 典籍 중에서 '技術'에 대한 최초의 기록 漢나라 때부터 보인다. 『史記, 貨殖傳』에서 技術의 內容과 技術人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技術은 醫術과 方術이며 기술인들은 밥벌이를 위하여 정신과 능력을 극도로 집중한다고 말하였다.<sup>3)</sup> 의술이 기술이라는 관념은 『漢書, 藝文志』에서도 확인된다.<sup>4)</sup> 그러므로 漢나라의 기술관은 대체로 醫術과 方術을 기술과 동일시

2) Jagues Ellul 저, 박광덕 역, 『기술의 역사』, 한울, 1996, 30면.

3) “醫方, 諸食技術之人, 焦神極能, 爲重糶也.”

4) “漢興, 有倉公, 今其技術晦昧, 故論其書, 以序方技, 爲四種.”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技術이 하나의 분야로 독립된 것은 『隋書』에서부터이다. 『隋書』에서는 圖書를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5번 째가 「技術」이며 그 내용은 '數術의 기록'이라고 하였다.<sup>5)</sup> 이로 본다면 기술에 數術이 추가된 것은 隋唐 때이다.<sup>6)</sup>

技術觀에 대한 비약적 발전은 宋나라 때 이루어졌다. 그것은 당연히 기술의 발전이라는 객관적 요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다양한 類書의 출판이라는 문화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宋나라 王欽若이 편찬한 『冊府元龜』<sup>7)</sup>에는 <技術>部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의 妙理를 연구하는 것은 위를 섬기는 일이고 方術의 뜻에 통하는 것은 만물을 구제하는 일이다.”<sup>8)</sup>라고 하면서 「幻戲」·「星歷」·「餌藥」·「鑄金」·「書畫」·「博奕」 등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로 본다면 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이 이전 시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宋의 任廣이 편찬한 『書敍指南』<sup>9)</sup>의 「技術雜藝」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기술에 근접한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다. 당시에 존재하였던 주요 수공업, 예들 들면 裁縫·기와 제작·수레 제작·玉 가공·釀造·화살 제조·鑄

5) 『隋書』卷32, “一曰經典錄紀六藝, 二曰記傳錄紀史傳, 三曰子兵錄紀子書兵書, 四曰文集錄紀詩賦, 五曰技術錄紀數術, 六曰佛錄, 七曰道錄.”

6) 『隋書』는 당나라 때 찬수되었으므로 당나라 시대의 의식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四庫全書總目』 55권에서는 『후한서』 <열전> 가운데 技術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후한서』에는 기술열전이 없으며 <方術列傳>이 그것에 해당한다. 『史記』나 『漢書』의 技術觀과 청나라 때 찬수된 『四庫全書總目』에 투사된 기술관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7) 1018년에 初刊 되었음.

8) 『冊府元龜』, 卷990, 外臣部, “夫究技術之妙, 所以事於上, 通方術之旨, 所以濟乎物.”

9) 靖康年間(1126~1127)에 初刊되었음.

造·會水·공 제작·板刻·畫木·상아 공예·물소뿔 공예·뿔 공예 등의 제반 제작 기술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노래 등의 예능, 씨름과 같은 운동, 요술이나 뱀 놀리기 등의 技藝들이 망라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송나라 때 이미 技術은 현대적 개념에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宋의 謝維新이 편찬한 『古今合璧事類備要』<sup>10)</sup>는 技術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내용별로 하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책의 55, 56, 57권이 <技術門>인데, 55권은 「醫家」·「占卜」·「剋擇」·「師巫」·「談命」·「說相」, 56권은 「工畫」·「傳神」, 57권은 「撫琴」·「奕碁」·「習射」·「投壺」·「博戲」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본다면 謝維新은 기술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첫번째 범주로 醫術과 占卜術을 하나로 묶었고 그림을 두번째 범주로 설정하였으며 세번째 범주에 거문고 연주·바둑·활쏘기·투호·노름 등의 음악이나 잡기를 포괄하였다.

이상과 같이 송나라 때에는 類書 속에 기술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고 다시 그것의 하위 범주를 나누는 등 기술에 대한 인식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에 차등적 가치관이 적용되는 것도 송나라 때부터이다.

宋나라의 廖剛(1071~1143)은 기술이란 이단의 末端的 익힘으로 名教에 보탬이 없는 것<sup>11)</sup>이라고 하였고 衛湜<sup>12)</sup>은 曲藝는 자질구레한 기술이며 그것은 醫術과 占卜術이라고 하였다.<sup>13)</sup> 이로 본다면 기술에 대한 부정

10) 1257년에 초간 되었음.

11) 「書贈馮生」, 『高峯文集』, “世之名技術者, 類多異端末習, 徒以投好流俗, 初無補於名教”

12) 송나라 理宗(재위기간 1225~1264) 때 인물.

13) 『禮記集說』 卷51, “曲藝謂小小技術, 若醫卜之屬”

적 가치관은 송나라 때 명확하게 표출되었다고 하겠다.

기술에 대한 가치관의 구체적 양상은 吳如愚(1167~1244)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術이 없다면 불학무식한 사람이라고 단언하면서 法術의 術과 技術의 術이 있다고 하였다. 法術의 術은 法이 될만한 것이고 技術의 術은 技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술이 천하게 여겨진 역사적 유래는 한나라 때의 임금이 方術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4)</sup> 程迥<sup>15)</sup>은 聖人の 책인 『周易』이나 陰陽家の 책이 모두 吉凶에 대해서 말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兩者의 차이는 道義와의 부합 여부라고 하였다. 기술은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목적달성이라는 결과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sup>16)</sup>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그 자체의 속성 변화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송나라의 理學的 사유체계에 의하여 차등화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元나라의 기술관에 대한 특징으로는 기술의 주체인 인간으로 시각이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宋末元初의 郝經(1123~1275)이 찬술한 『續後漢書』에 〈技術列傳〉이 있는데 그 속에는 華佗·薊子訓·左慈·甘始·王眞·郝孟節·李意其·周群·杜瓊 등이 立傳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가치관은 송나라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sup>17)</sup> 학경의 견해를 정리한다면 數 = 衍道 = 技, 術 = 異端之私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의 기본적 시각은 道の 결여라는 점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胡一桂에게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기술을 陰陽術과 동일

14) 「術說」, 『準齋雜說』.

15) 송나라 孝宗(재위기간 1163~1189) 때의 인물.

16) 「理」, 『周易啓蒙翼傳』, “程沙隨, 謂易以道義配禍福, 故爲聖人之書, 陰陽家獨言禍福而不配以道義, 詭遇獲禽則曰吉, 得正而斃則曰凶, 故爲技術, 斯言, 最有補於世教.”

17) “古者, 數以衍道, 後世爲技爲術, 而不本於道, 故大方, 不完入於小數, 盡爲異端之私也.”

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sup>18)</sup>

기술에 대한 의식의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는 明나라 때이다. 歸有光(1506~1571)은 기술 중에서 醫術이 史書에 기록되어 있으나 新奇하고 譎怪한 事迹을 취한 것으로 經世의 요체가 아니기에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술은 성인이 창제한 것으로 백성의 삶에서 하루라도 없을 수 없다는 적극적 인식을 하고 있다.<sup>19)</sup> 귀유광의 말에 의하면 의술을 비롯한 기술이 천시되는 이유는 초자연적 治療談 때문이라는 것이다.

淸나라 때에는 技術이 文學의 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黃宗羲(1610~1695)가 편찬한 『明文海』의 107·108·109권은 〈技術〉을 主題로 한 名文을 選集한 것이다. 여기에서 기술로 다룬 작품의 소재는 地師·四柱說·筆生·畫史·相術·醫術·日者·符章·거문고·비파·印章 등이다. 기술의 범주에 占卜과 의술에 그림·서예·전각·음악 등의 예술이 망라되어 있다. 『明文海』에서 다룬 기술의 범주는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松南雜識』 〈技術類〉와 내용상 일치하는 점이 많기에 특히 주목된다.

이상에서 중국의 기술관을 史的으로 검토해본 결과 漢나라 이후로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출현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술의 하위 범주 역시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송나라·원나라 때 형성 강화되었다가 명나라·청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그것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문학의 일 주제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 『周易啓蒙翼傳』 下.

19) 「贈醫士張雲厓序」, “技術之事, 微矣, 自司馬子長傳扁鵲倉公, 自後爲史者概取神奇詭怪之說, 以附於正史, 予頗疑其非經世之要, 欲爲後世立史法, 削去方伎傳, 庶幾不詭於聖人……以是知百家伎藝, 皆聖人之所創制, 民生之不可一日無者.”

### 3. 우리나라의 中世的 技術觀

우리나라의 기술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영성하여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散見되는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技術觀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초기의 기록에서 ‘技術’이라는 개념은 찾기 어려우며 다만 ‘技’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三國史記』에 보인다. 고구려 장수왕이 鍾道琳을 백제에 간첩으로 보내 바둑으로 왕의 환심을 사게 한 일이 있다. 여기에서 바둑을 ‘技’라고 일컫고 있다.<sup>20)</sup> 또 允興이 貴金先生의 거문고 연주술을 ‘技’라고 표현한 것<sup>21)</sup>을 본다면 『삼국사기』에서는 바둑과 같은 雜技나 악기 연주와 같은 음악을 ‘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醫術을 技能이라고 한 것은 『高麗史』에서부터 보인다. 『고려사』에서는 朝鮮公 王燾가 技能이 많았는데 특히 의술에 정통하였다고 하였다.<sup>22)</sup> 의미상 ‘技能’과 ‘技術’의 차이는 없으나 의술을 技術로 표현한 것은 李彦迪(1491~1533)이 “國醫不能用技術”<sup>23)</sup>이라고 한 언급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중세적 기술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技術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占卜術과 醫術을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점복술이 기술로 지칭되는 것은 李廷龜(1564~1635)의 글에서부터 보인다. 李廷龜는 당대의 유

20)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 “臣異國人也, 上不我疎外, 恩私甚渥, 而惟一技之是效, 未嘗有分毫之益.”

21) 『三國史記』 卷32, 雜誌 第一, 樂, 新羅樂, 玄琴, “吾王遣我南原者, 無他, 欲傳先生之技, 于今三年矣.”

22) 『高麗史』 卷90, 列傳3, 宗室1, 朝鮮公燾 “工筆札, 多技能, 尤精醫術, 以畜藥活人爲事.”

23) 「弘文館上疏」, 『晦齋集』.

명한 術士 李懿信의 交河遷都論을 論斥하는 글에서 風水說<sup>24)</sup>을 기술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朴長遠(1612~1671)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당대의 金緻(1577~1625)가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로 技術에 널리 통달하였고 그 중에서도 談命에 더욱 정통하다고 평하였다.<sup>25)</sup>

醫術과 占卜術을 技術로 지칭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金錫胄(1634~1684)는 “지금의 醫員과 方術士 등 기술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sup>26)</sup>이라는 표현을 구사하였으며 동시대의 任昉(1640~1724)은 자신의 先考 任義伯이 박식하였음을 말하면서 “醫卜技術之類”<sup>27)</sup>라고 표현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그들이 의술이나 점복술을 의미하는 技術을 모두 賤視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李選(1632~1692)이 鄭忠信(1576~1636)을 평가하면서 “風水나 占筮와 推命 등 여러 技術書籍도 폭넓게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28)</sup>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적어도 의술과 점복술 등은 사대부의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평가되었으며 이것이 그들 기술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인정된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근대적 의미의 기술에 대한 관점은 어떠했을까?

柳馨遠(1622~1673)은 기술을 지닌 匠人으로 “弓矢人·銃劍·甲胄匠·冊匠·墨匠·筆匠·刻字匠·樂器匠·扇子匠·綾羅匠”을 열거하면서<sup>29)</sup> 우리 나라의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물건이 조잡할 수밖에 없는 근

24) 「李懿信遷都上疏回啓」, 『月沙集』, “風水之說, 爲可崇信, 未然之事, 一一符合, 遷都之舉, 莫大莫重, 雖郭璞建議, 淳風畫策, 猶難輕議, 況懿信之技術, 精粗淺深, 誰得而知之?”

25) 「記文」, 『久堂集』.

26) 「慾并題」, 『息庵遺稿』, “今之醫方諸食技術之人.”

27) 「先考今是堂府君行狀」, 『水村集』.

28) 「錦南君鄭公行狀」, 『芝湖集』, “而凡廿石堪輿, 占筮推命諸技術之書, 莫不涉獵傍通.”

29) 유형원은 비록 技術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能’, ‘技’라고 하였으나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본적 원인으로 장인에 대한 천대를 꼽았다.<sup>30)</sup> 장인 천대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인 기술의 낙후는 18세기에 홍대용(1731~1783)에 의하여 그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른다. 그는 “대개 중국 사람은 工匠 이하는 대수롭지 않는 기술이지만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 직업에 것처럼 열중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일이었다.”<sup>31)</sup>라고 지적하였다.

이로 본다면 우리 나라의 중세적 기술관은 사대부의 교양으로서 의술이나 점복술의 가치를 인정하였던 반면 기능적 성격의 기술은 오히려 천시하여 그 발전에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18세기까지 우리 나라의 技術觀을 검토하였는데 그것이 19세기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계승,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 4. 『松南雜識』에 나타난 19세기 조선인의 技術觀

19세기 조선인의 기술관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松南雜識』이다. 『松南雜識』는 趙在三<sup>32)</sup>이 1855년(哲宗 6년)에 저술한 百科全書的 성격의 類書로 총 1743장으로 이루어진 巨帙이다. 그 내용은 33類의 상위 범주와 4378항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3)</sup> 그 중에 151항의

30) 「雜說」, 『磻溪隨錄』.

31) 「沿路記略」, 『湛軒書』, “蓋華人雖工匠末技, 其勤勵不苟如此, 眞不可及也.”

32) 趙在三(1808~1866)은 在野의 士人으로 號가 松南이고 字는 仲璣이며 拙修齋 趙聖期の 5대손이다.

33) 天文類(70項目)·歲時類(153項目)·地理類(186項目)·國號類(35項目)·歷年類(15項目)·外國類(120項目)·人事類(40項目)·嫁娶類(76項目)·喪制類(139項目)·姓名類(71項目)·科擧類(40項目)·文房類(84項目)·武備類(114項目)·農政類(65項目)·漁獵類(16項目)·室屋類(120項目)·衣食類(248項目)·財寶類(77項目)·什物類(90項目)·音樂類(95項目)·技術類(151項目)·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 〈技術類〉가 있다.<sup>34)</sup>

### 1) 項目的 배열에 나타난 技術觀

서구에서는 19세기에 근대적 의미의 백과사전이 출판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sup>35)</sup>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유서인 『송남잡지』는 나름대로의 지적 관심과 고민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세적 사고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항목의 배열이 중세적이라는 것이다. 〈天文類〉가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동양 類書의 일반적 항목 배열 규칙을 준수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체적 항목의 설정과 次序에서 독자적 특성을 찾을 수는 있다. 조재삼의 기술관이 類書라는 중세의 보편적 형식 속에 담김으로써 근대적 지향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술류〉의 가장 앞에 編次된 항목은 「圍碁」를 위시하여 「蹙戎」·「彈碁」·「打馬」·「鬪碁」·「象棋」·「雙六」·「明瓊」·「博陸」 등이다. 바둑·장기·주사위 놀이·쌍륙, 또는 그것들이 응용·변형된 雜技 내지 오락이다. 현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 과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리라. 기존 유서들의 항목 배열 순위와도 편차를 보인다.

다음에 이어지는 항목은 「燕濯」·「拍張」·「白打」·「游水」이다. 白打는 蹴鞠의 기술 중 하나를 지칭하며<sup>36)</sup> 游水는 말 그대로 흔한 물놀이지만

---

拘忌類(80項目)·仙佛類(114項目)·祥異類(119項目)·稽古類(406項目)·理氣類(33項目)·人物類(28項目)·朝市類(120項目)·方言類(812項目)·花藥類(81項目)·草木類(178項目)·蟲獸類(207項目)·魚鳥類(187項目)

34) 이하에서 『송남잡지』 〈技術類〉는 〈技術類〉로 약칭한다.

35) 영국인 E. 체임버스가 1728년 런던에서 출판한 Cyclopaedia는 내용이 알파벳순 대항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군주 전제와 성직자의 횡포를 국민의 편에서 비판하고 기술과 생산을 존중하다는 점에서 근대 백과사전의 모습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燕濯<sup>37)</sup> · 拍張<sup>38)</sup>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 아마도 요즘 씨커스의 일종으로 보인다. - 蹙戎부터 博陸까지가 주로 知的 기능이 요구되는 娛樂 이라면 燕濯부터 游水까지는 육체적 기능이 필요한 娛樂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항목은 「留客環」·「桴蒲」·「投壺」·「攤戲」·「鬪牋」·「骰牌」·「格五」·「撩零」·「觴詠圖」·「勝兔」·「攤錢」이다. 이 중에서 편차가 잘못된 「留客環」<sup>39)</sup>과 「觴詠圖」<sup>40)</sup>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내기 내지는 賭博性 娛樂들이다. 이들 항목은 그 성격에 맞게 게임의 룰을 소상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놀음꾼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隱語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항목은 「跳板」〔널뛰기〕·「弄丸」〔공기놀이〕·「藏鉤」〔주먹놀이〕·「猜枚」〔삐죽질〕·「竹馬」·「鬪鷄」〔닭싸움〕·「鬪腕」〔팔씨름〕·「角觥」〔씨름〕·「拔河」〔줄다리기〕·「打毬」〔제기차기〕·「陸船山車」·「落花戲」·「石戰」〔돌싸움〕·「鞦韆」〔그네뛰기〕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간단한 민간놀이이거나 아동놀이이다. 따라서 현재의 명칭과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을 명시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의 항목 역시 놀이에 속하지만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才藝에 해

36) 『蹴鞠譜』에서 이르기를 '사람마다 두 번 차는 것을 打二라고 하고 끌고가다가 세 번 차는 것을 白打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白打」)

37) 「西京賦」에서 '衝狹과 燕濯'이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서 '(燕濯은) 물이 든 대야를 앞에 두고 그 뒤에 앉는다. 몸은 솟구치고 손은 펼쳐 앞으로 도약한다. 발로 박자에 맞춰 물을 뛰어 넘은 뒤에 다시 물러나 앉는 모습이 마치 제비가 목욕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燕濯」)

38) 『南史』에서 말하기를 '王敬則이 拍張을 잘하였다. 송나라 황제가 칼을 휘두르게 하니 적중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대로 정강이를 치면서 박장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손으로 치고 머리를 붙잡는 놀이이다.'라고 하였다. (「拍張」)

39) '전설에는 諸葛良의 부인 黃氏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본래 진나라가 제나라 王后에게 玉連環을 보내 풀게 하였다.' (「留客環」)

40) '兪州 王世貞이 만들었다. 술 한 잔에 한 수씩 읊어서 歌詞를 익힌다. 또 「升卿圖」는 벼슬의 명칭을 익히는 놀이이다.' (「觴詠圖」)

당한다. 「鰲棚」·「孝竹」·「都頭技」·「呈才人」·「倒掛」·「筋斗」[곤두박질]는 오늘날의 서커스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善眩人」[마술사]·「草木人」·「傀儡」·「草難脫」은 演行에 해당한다.

그 다음 항목은 「氷溜」[얼음지치기]·「行跨」[양감질]·「浮葉庭潦」·「紙鳶」이다. 앞에 배열된 항목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기예인데 반해 이들은 지극히 단순한 아동놀이이다.

다음 항목은 수수께끼[誣謎]인데 주로 破字를 이용한 것이다. 일부 항목이 취하는 형식과 같이 誣謎 안에는 그와 속성을 공유하는 항목이 들어 있으니 撒癡·挪揄·格支가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항목들은 현재적 관념으로는 놀이의 범주로 구분되는 것이다. 게임이나 도박·서커스·演戲·演行은 고도로 숙련된 재주가 필요하지만 현재적 관점뿐만 아니라 전통적 관점에서도 기술로는 보지 않는다. 이로써 조재삼이 기술의 범주를 기존의 관념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에 이어지는 항목은 占卜術이다.

占卜術에 해당하는 항목은 「星曜書」·「紫微」·「磨蝎」·「掌訣」·「四柱編年」·「唐畫周易」·「心相」·「影相」·「同貌」·「同命」·「天定」·「金銀榜」·「筆占」·「擲錢」·「風角」·「京爻當日」[京房의 爻는 每日에 해당함]·「書田殺鼠」[田자를 써서 쥐를 죽임]·「風水」·「卜舊墳」·「福人逢吉地」[복 있는 사람이 길지를 만난다]·「九遷父葬」[아홉 번 아버지를 이장함]·「改窆譏詩」[移葬을 놀리는 詩]이다.

占卜術은 前述한 바와 같이 중세적 기술관의 양대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술류>는 전통적 관념을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도록 占卜術을 기술로 생각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류〉에서는 占卜術의 종류와 방법, 그에 얽힌 逸話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의 類와는 다르게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음이 주목된다.

- “褻度가 이른바 ‘닭과 돼지와 술과 국수는 먹게 되면 먹고 生老病死는 때가 되면 진행된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통달한 견해이다.”<sup>41)</sup> (「四柱編年」)
- “李文源이 수십 개월 동안 다시 相을 보아 달라고 간청하니, 그 정성이 지극하였으므로 ‘외모의 상[貌相]은 마음의 상[心相]만 못하오.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부귀의 상이라 될 만하외다.’라고 하였다.”<sup>42)</sup> (「心相」)
- “천하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生年月日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장수·요절, 빈궁·현달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으랴? 나는 내심 의혹스럽다.”<sup>43)</sup> (「同命」)
- “이러한 일들은 대개 이미 정해진 운명에 연유하는 것이기에 부처에게 아첨하고 신에게 기도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44)</sup> (「天定」)
- “나는 이 세상의 榜은 부자가 되는 기술에 부지런하면 부자, 과거 공부에 부지런하면 과거 급제, 도덕에 부지런하면 道德君子가 된다고 생각한다.”<sup>45)</sup> (「金銀榜」)
- “이런 까닭에 象村 申欽이 ‘朱子の 學술은 모두 배울만하지만 오로지 풍수 지리만은 배울 것이 없다’고 한 말이 그 증거이다.”<sup>46)</sup> (「福人逢吉地」)

이상은 四柱八字·觀相·祈福·風水에 대한 조재삼의 견해이다. 그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인간의 생애는 자연 현상에 따르는 것이지 先驗的 運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주팔자 못지 않게 崇奉되는 것이 觀相인데 이에 대해서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心相이 더 가치 있다고 하였다. 또

41) “褻度所謂, “鷄猪酒麵, 逢着則喫, 生老死病, 時至則行’, 固達論也.”

42) “文源請更相數十朔, 其誠到底, 乃曰: ‘貌相不如心相也.’”

43) “天下之人, 其數無算, 則同年月日時生人, 亦不知其幾許, 壽夭窮達, 豈能如一, 余竊惑焉.”

44) “此類者, 卒由於已定之天, 非詔佛禱神而所可避也.”

45) “余見人間之榜, 盖勤於富術則富, 勤於科工則科, 勤於道德則爲道德之士矣.”

46) “是以, 象村曰: ‘朱子之學術, 皆可學, 而惟地理, 不可學’是也.”

祈福의 무의미함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며 현실세계에서 자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山訟의 폐단을 야기한 風水說에 대해서도 朱熹가 자신의 부모를 각각 천리 밖에 장사지낸 일을 비판하면서 아무리 주자의 학술이 가치 있다고 하지만 풍수지리설을 배워서 안 된다고 하였다. 또 「九遷父葬」에서 南師古가 자신의 아버지 묘를 아홉 번이나 옮긴 일화를, 「改窆譏詩」에서는 『書經』의 주석가로 유명한 蔡沈의 아버지 蔡元定이 풍수지리에 능하여 移葬을 일삼았던 일화를 거론하면서 그 무모함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占卜術 다음에 배열된 항목은 醫術이다. 醫術은 점복술과 함께 技術을 구성하는 주 내용이다. 그런데 조재삼은 점복술에서 의술로 넘어가는 중간에 하나의 항목을 마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醫意巫誣」에서 病理는 의원이 말로 전달할 수 없으며 무당은 사람을 미혹되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의술에 대해서는 무당을 믿고 의원을 믿지 말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扁鵲의 말을 인용하여 무당보다 의원이 더 믿지 못할 존재임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 占卜術과 醫術이 기술의 대표적 범주라는 점은 매우 의아하지만 의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기에는 양자의 구분이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술류>에 신비주의적 치료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술이 점복술 뒤에 編次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의술에 관한 항목은 「東醫寶鑑」·「一身乾坤」·「五官」·「榮衛陰陽」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醫術의 總論에 해당한다. 「東醫寶鑑」이 가장 앞에 배열된 것은 우리 나라의 수준 높은 의술에 대한 자부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一身乾坤」·「五官」·「榮衛陰陽」은 인체의 구조에 대한 서술인데 대부분 『周易』의 이론 등에 토대 하였으니 여전히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人病三頤」에서는 인간의 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간략히 서술하였고 「角弓反張」부터는 구체적인 질병의 특징과 그 치료법, 그에 얽힌 일화 등을 서술하였다. 「割癭愈大」·「疔痘」·「神豆法」·「聖痘」·「痘神」·「麻癩」·「肉人」·「蛔」·「翳」·「斛二瘕」·「顛狂」·「胎髮必剃」·「策刺」·「藥誅倭酋」·「西洋醫學」·「醫求滿洲」·「砭灸」·「銅人經」·「針經」·「關尺脈」·「針不近玉」까지가 의술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그 중에서 증세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割癭愈大」부터 「胎髮必剃」까지이다. 천연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그것이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질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技術類〉에서는 일반적인 질병보다는 神異한 질병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割癭愈大」·「斛二瘕」는 『幽怪錄』이나 『太平御覽』이 원출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이한 증세와 치료에 대한 기록이다.

「策刺」·「砭灸」·「銅人經」·「針經」은 진료 도구나 의료서적에 대한 기록으로, 脈에 대한 설명인 「關尺脈」과 함께 현대적 의미의 技術에 가장 근접한 내용이다.

「藥誅倭酋」는 명나라의 沈惟敬이 기지로 風臣秀吉을 독살하였다는 전설의 기록이므로 병자를 치료하는 의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심유경이 풍신수길에게 좋은 약이라고 기만하였다는 점에서 의술에 포함시켰다. 「醫求滿洲」는 藥誅倭酋와 상반된 내용이다. 만주의 누루하치를 조선의 의원이 살려냈다는 전설의 기록이다.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西洋醫學」으로 명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이탈리아인 Ludovico Buglio와 벨기에인 Ferdinand Verbiest가 內科와 外科 醫書を 저술하였다는 내용과 그들의 진찰법, 치료법, 藥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19세기의 서양 의료 지식치고는 매우 소박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항목은 民間信仰으로 「花郎」·「竹枝叢鈴」·「東桃赤豆」·「糜粥棄巷」·「鄉俗逐鬼」·「嚴木瘰病」·「符籙」·「豬神」·「巫卵古」·「傴巫跛覘」·「箠籟箠箠」·「黠黑律」·「金泥辟魅」·「魚鳧滄」·「燒紙」·「鷄卜」·「蠱麼」·「燒紙」·「倭巫知松」·「胎呪」·「壺公縮地」·「龍樹隱身」·「化鷹逐雉」·「四溟火術」·「六丁」·「冷謙遁瓶」·「丐者聖瓶」·「清清盧將軍」·「投糞認桃」·「花水殿文」·「坐汞人浮」·「逆流木」·「埋木射像」·「魄還」·「避凶取吉」·「紅頭蟲」·「秘記」·「操鷄搏鴨」·「禾女人」·「天書」·「蟆寂虎息」이다.

縮地法·隱身術·變身述·呪呪術을 비롯하여 귀신을 쫓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 「投糞認桃」·「坐汞人浮」와 같이 惑世誣民의 欺瞞術까지 항목 속에 섞어 놓았다. 이는 다음의 언급과 함께 民間信仰이나 주술에 대한 그의 인식을 대변한다.

- “이 이치를 알 수 없다.”<sup>47)</sup> (「胎呪」)
- “그러므로 군자는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sup>48)</sup> (「壺公縮地」)
- “지금 奇門·六壬·『玉樞經』·『金剛經』은 사람을 속이기에 충분하다.”<sup>49)</sup> (「避凶取吉」)
- “비록 桓譚이 이른바 ‘그 일이 비록 맞을 때도 있지만 비유하자면 홀· 짝을 맞추는 것과 같은 類이옵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묘하다.”<sup>50)</sup> (「秘記」)

위의 인용문에서 조재삼은 민간신앙이나 呪術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람을 속이거나 어림짐작으로 우연히 맞추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47) “此理未可曉也.”

48) “是以，君子不語怪力亂神.”

49) “今奇門·六壬·玉樞經·金剛經，適足欺人矣.”

50) “雖桓譚所謂，‘其事，雖有時合，譬猶卜數隻偶之類也’，然術則妙矣.”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技術類〉에서 다룬 이유는 「秘記」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록 기만술이지만 속게 만드는 기술 자체가 묘한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하였다. 그 총체적 견해는 「君子不學」에서 피력되고 있다. 그는 역사상에서 유명한 예언가도 자기 한 몸의 운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 욕된 삶을 살았다는 예시를 들면서 인간의 인지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비주의적 세계를 거부한 조재삼이 〈기술류〉에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 2) 神秘主義的 要素의 記述

神秘主義란 본시 일종의 종교적 체험이나 형태에 관한 개념이기에 그것과 技術의 간극은 대단히 멀어 보인다. 따라서 신비주의적 요소의 함량 측정이 근대적 技術觀으로의 근접 정도를 파악하는 일 방법이 될 것이다.

〈기술류〉에 나타난 조선의 19세기 기술관에는 분명 신비주의적 요소가 내재한다. 이는 놀이와 게임, 서커스를 제외한 범주들에서 고루 보이는 현상이다.

놀이는 그 성격상 신비주의적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그러나 승부를 다투는 게임의 경우는, 지금도 기상천외한 방법이 고안되고 사용되듯, 이기려는 강한 열망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圍碁」에서는 바둑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면서 “허물을 벗은 용의 이빨 하나를 가지고 바둑을 두면 저절로 臨機應變이 막힘없이 나온다.”<sup>51)</sup>라고 하였다.<sup>52)</sup>

51) “取蛻龍牙一枚，臨局，自然機變橫出云。”

52) 이외에도 승부외는 무관하나 신비주의적 요소가 강한 내용으로 “닭의 피를 취하여 바늘을 간 쇠와 섞은 후에 찢어서 자석에 쉰다. 그것을 날마다 바둑돌의 머리에 발라서 바둑판 위에 올리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힌다.”, “오월 단오에 강충거미를 절구로 찡

점복술에는 신비주의적 내용이 다수 들어갈 법하지만 생각 외로 많지는 않다. 「紫微」의 豫言, 「心相」의 觀相法, 「書田殺鼠」의 壓勝術, 「卜舊墳」의 撥沙 정도가 비합리적 내용에 해당한다.

의술의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伶人 刁俊朝의 아내 巴嫗의 목에는 몇 휘 들이 주머니 같은 혹이 달려 있었는데 거문고·비파·생황·경쇠 소리가 났다. 그 아내가 칼로 찢려고 하자 갑자기 혹이 터지면서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 나왔다.”<sup>53)</sup> (「割癭愈大」)

“『太平御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한 휘 두 말의 차를 마셨다. 하루는 과다하게 차를 마시고 소의 허파와 같은 물건 하나를 토하였다. 그것에 차를 부어보니 한 휘 두 말이 들어갔다. 객이 말하기를 ‘이것의 이름은 斛二痕입니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酒蟲과 유사하다.”<sup>54)</sup> (「斛二痕」)

병에 관련된 항목은 주로 증상이나 그에 얽힌 일화의 소개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현재적 관점상의 技術的 醫術과는 거리가 있다. 즉 기술로서의 의술이라고 한다면 의당 치료법에 중점을 둔 記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류>에서 발병의 원인, 예방법, 치료법에 대한 소개는 소홀하다.

신비주의적 요소가 가장 강한 항목은 아무래도 민간신앙과 주술이다. 귀신을 부르는 법과 귀신을 쫓는 법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민간 처방이 소개되어 있다. 그것의 합리성 여부를 且置한다면 技術的 속성이 가장 강하다.

어서 콩과 반죽하면 콩이 저절로 튀어 파리를 때린다.”(「鬪碁」)라고 한 것이 있다.

53) “伶人, 刁俊朝妻巴嫗, 項癭如數斛囊, 作琴瑟笙磬音, 妻欲以刀決之, 癭忽坼裂, 一獠跳出.”

54) “『御覽』曰: 有人飲茶斛二斗, 一日過量, 吐如牛肺一物, 以茶澆之, 容一斛二斗, 客曰: 此名斛二痕, 似今酒蟲.”

### 3) 서양 과학 기술의 이해

우리나라 士人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漢譯書를 통해서 17세기 이후부터 서양과학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서양과학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한 士人들은 18세기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이 李澗이다.<sup>55)</sup> 조재삼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직접 목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문헌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송남잡지』에 인용된 도서 중 『星湖僊說』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가 이익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송남잡지』에 나타난 조재삼의 서양과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지는 않으나 잘못된 견문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도 적지 않은데, 비교적 정확한 정보에 토대한 내용은 주로 曆法에 관련된 것이다. 서양의 과학 기술 중 중국에 가장 빨리, 또 무난하게 도입된 분야가 역법이므로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天文類>의 「地上皆天」에서 서양의 曆說을 소개하였고, <歲時類>의 「時憲書」와 「萬歲曆法」에서 서양의 역법이 중국에 도입된 경위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자연과학에 대한 분야는 근거 없는 내용이 記述되어 있다. 예를 들면 <天文類>의 「食雷」에서 “서양 사람들은 땅을 몇 걸음 재서 벼락이 칠 곳에다 미리 구덩이를 팠다가 우레가 굴러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치면 바로 파묻는다고 한다.”<sup>56)</sup>라고 한 기록이 그러하다. 또 <地理類> 「漢拏山」에서 “전설에 서양 사람인 마테오리치가 (天池를) 사흘 동안 관찰하고 “천지가 호흡하는 구멍”이라고 하였다.”<sup>57)</sup>라고 기록하였으니, 이 역시 비합리적인

55) 박성래의 상계 논문.

56) 『國史補』曰: ‘雷州人, 取雷食之如飢云’, 洋人尺地幾步, 當雷預掘坎, 及雷轉, 得坎而止, 卽埋之云.”

57) “諺傳, 洋人利瑪竇, 三日窺見, 以爲天地呼吸之穴.”

傳言을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이다.

그들이 만든 기계나 물건에 대한 관심도 산견할 수 있다. 〈外國類〉의 「佛狼機國」에서는 프랑스를 佛狼機라는 대포의 산지로 소개하고 있다. 서양 중에서 프랑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武備類〉의 「佛狼機」에서 「佛狼機國」와 近似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衣食類〉 「西洋布」에서는 프랑스의 織物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財寶類〉 「眼境」에서는 서양의 안경을 〈什物類〉 「獸炭」에서는 불길은 일지 않고 빛만 난다는 솟을 소개하였다. 〈花藥類〉 「鴉片烟」에서는 서양인들의 아편담배 제조법을, 〈魚鳥類〉 「雄鯨雌鯢」에서는 서양인들의 고래 잡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한편 서양인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정확하지 못한 수준을 보여 준다.

〈外國類〉 「黑鬼子國」에서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은 물 속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며 총알·화살·槍도 그들의 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돌로 치고 馬價木으로 때리니 죽었다.”<sup>58)</sup>고 하였다. 〈衣食類〉 「凌波襪」에서는 “근래에 듣자 하니 서양 사람들은 水戰에 凌波襪을 신고 黃河를 걸어서 건넌다고 한다. 그들은 丹魚의 피를 발에 발랐는가?”<sup>59)</sup>라고 하여 서양인들이 물 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기술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異樣船의 출현에 대한 공포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양선이 최초로 조선에 출현한 것은 『송남잡지』가 기록된 10년 뒤인 1866년의 일이다. 따라서 중국에 출현한 이양선의 위력에 대한 과장된 傳言이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양선에 대한 기록은 〈武備類〉 「震天雷」와 「龜船」에서 볼 수 있는데 서양인의 능력에 대한 기록처럼 과장, 왜곡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기록보다는 畏懼의 정서가 더 강하다.

58) “其人，入水宿，入火居，銃丸矢不入，而以石擊之，以馬價木打之，死云。”

59) “近聞，洋人，水戰，着凌波襪，步渡黃河，其渡丹血耶?”

#### 4. 〈技術類〉 記述의 特性 - 결론을 대신하여

『송남잡지』 〈技術類〉의 형식, 즉 記述上의 특징은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기술관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당시 사인의 의식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기술류〉 記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技術 발생의 유래를 기술하였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헌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그것의 制度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그것의 교훈적 의미를 기술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속담, 전설 등이 풍부하게 기재되었다.

다섯째, 그것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예시하였다. 이 점은 앞에 제시한 몇 가지 특징보다 월등히 중요하다. 조재삼은 다양한 출전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 물론 史書는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표제어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인용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는 표제어와 인용 작품간에 내재하는 관련성을 찾으려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다. 이는 〈기술류〉가 지극히 실용적인 내용으로서 비현실적 요소는 가급적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현상을 적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기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상상력은 문학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9세기의 지식인 조재삼의 기술관은 문학적 의식과 취향을 뛰어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조재삼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이 땅의 뛰어난 지식인들은 대부분 文人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유의 근저에는 문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記述은 文學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문학적 존재인 士人은 문학적 의식에 규정되었기에 19세기의 技術觀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 자료

#### 중국

『四庫全書總目』

『史記』

『隋書』

『漢書』

歸有光, 『震川集』

謝維新, 『古今合璧事類備要』

吳如愚, 『準齋雜說』

王欽若, 『冊府元龜』

廖剛, 『高峯文集』

衛湜, 『禮記集說』

李選, 『芝湖集』

任廣, 『書敍指南』

任昉, 『水村集』

郝經, 『續後漢書』

胡一桂, 『周易啓蒙翼傳』

黃宗羲, 『明文海』

#### 우리나라

『高麗史』

『三國史記』

金錫胄, 『息庵遺稿』

朴長遠, 『久堂集』

柳馨遠, 『礪溪隨錄』

李彦迪, 『晦齋集』

李選, 『芝湖集』

李瀾, 『星湖僊說』

李廷龜, 『月沙集』

趙在三, 『松南雜識』

洪大容, 『湛軒書』

■ 저서 및 논문

Jagues Ellul 저, 박광덕 역 『기술의 역사』, 한울, 1996.

박성래, 「韓·中·日의 西洋科學受容 : 1800年 이전의 근대과학 잠재력 비교」,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3권 제 1호, 한국과학사학회, 1981.

|          |
|----------|
| Abstract |
|----------|

## A study on an idea of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thinking of korean in the 19th century

Kang, Min-Koo

This paper was drawn up with an intention which was about to search the most problem of korean society in nowadays which was a hightening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arched about a korean technological thinking in the 19th century which was a dividing ridge of a scientific technique by a longitudinal origin quest.

A chinese technological thinking which influenced on Cho-son(朝鮮) appeared a various technique in accordance with a development of a history and a society after the Han dynasty(漢代). As a result, a subordinate category was diversified. In the other hand, a disavowal idea about a technique was strengthen in the Song dynasty(宋代) and the won dynasty(元代). Not only its worth was affirmed in the Ming dynasty(明代) and the Chong dynasty(清代) but also was recognized of a subject of a literary. An idea of technology of the middle age in the Cho-son dynasty(朝鮮王朝) was the astrology and the medicine including music and a miscellaneous games. An modernistic technological idea was presented after the 17th century. A noticeable item was that the astrology and the medicine was admitted as a refinement of an illustrious official, as a result, its worth was conceded. On the other side, a functional technique was despised and its development was overdued. A part of a technique of 『Song-nam Jab-jee(松南雜誌)』 by Cho Jae-sam(趙在三) was a material which clearly showed an idea of technology in the 19th century. In a field of form and substance, it was not free from the medieval thought. Its item enumeration included an inappropriate item in a modernistic technological idea. Not only the astrology and the medicine which was a noticeable category in a traditional technique but also a miscellaneous games, an entertainment, a circus, a game play, a magic method of contracting space which was connected with a popular belief. A method of hiding oneself, a method of a transformation, a method of a curse, a trickery was covered.

One of special feature which was captured by its description was a

mysterious factor. Excepting a game play and a circus, this feature was discovered in every category. Although he had a confucinal actualism and stucked to a rational view-point, the reason why included a mysterious factor was that he is a writer. It should have excluded a nonrealistic factor. The reason why showed up this phenominon was not free from a writer's world view and an idea of technology.

**Key Word**

technology, an idea of technology of the middle age, the 19th century, Cho Jae-sam, 『Song-nam Jab-jee』, a mysterious factor, a writer's world view